

Heritage, J. (1984).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Cambridge, NY: Polity Press.

1. Introduction	2
2. A Parsonian Backdrop	2
3. Phenomenological Input	3
3.1.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 Brief Introduction.....	3
3.2. Partings of the Ways	4
3.3. Schutz and The Verstende Basis of social science	4
3.3.1. The Natural and the Social Science	4
3.3.2. Verstehen in the Social World	4
3.3.3. Verstehen as a Social Scientific Method.....	4
3.4. A Typified World	5
3.5. The Problem of Intersubjectivity	5
3.6. The Problem of Rationality.....	7
3.7. Conclusion.....	7
4. The Morality of Cognition.....	8
4.1. The Constituent Tasks of Making Sense	8
4.2. The Moral Enforcement of “Trust”.....	8
4.3. Conclusion.....	9
5. Actions, Rules and Contexts	10
5.1. The Judgmental Dope and His World.....	10
5.2. ‘Double Constitution’ and the Logic of Normative Accountability.....	11
5.3. The Essential Insufficiency of Rules in the Determination of Conduct	11
5.4. Conclusion.....	11
5.5. Accounts and Accountings	11
6. Maintaining Institutional Realities	12
7. Conversation Analysis.....	12
8. Epilogue: An Uncompleted Quest	12

1. Introduction

2. A Parsonian Backdrop

3. Phenomenological Input

- 참조: 전 장에서는 T. Parsons 의 구조기능적 사회학을 살펴 보고 내화 (internalized)된 규범을 실천하는 주체 (개인)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모자란 점들을 나열하였다. 크게, Parsons 의 사회학은 사회라는 외적 실체에 대한 규범을 인간이 내화 (internalization)를 통해 습득하고 이로써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었다.
- Parsons 의 사회학에 대항해서 일어난 현상학자들의 동태에 대한 설명으로, 당시 Harvard 와 Boston 지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Marin Farber, Aron Gurwitsch 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특히 후자는 New York 의 New School 의 A. Schutz 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 당시 Harvard 에서는 “cognitive”에 관한 관심이 많았는데 Bruner 와 그 동료들은 지각과 인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의 기대 (expectation)가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Asch 는 사회적 압박 (social pressure)가 개인의 기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 보고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 Heritage 는 이 때에 Garfinkel 이 Schutz 의 논문을 발견하고 읽었다는 점, 그리고 Gurwitsch 의 사회학이론을 접목하여 인지 (cognition)의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Parsonian sociology 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논쟁의 장에 뛰어든 점을 일러두고 있다.

3.1.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 Brief Introduction

- Heritage 는 현상학의 초기단계적 발전의 원동력은 수학 (정도는 낮지만 물리학에서도)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E. Husserl 의 주관 (subjectivity) 에 대한 연역적 (deductive) 과학적 접근 방법이 이 점을 잘 나타내 준다.
- 초기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서 Frege 에게 비판을 받은 Husserl 은 후에 논리적 법칙에 따르는 경험의 “이상적 형태 (ideal type)”를 연구함으로써 논리체계 지식을 만드는 경험의 층을 기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Husserl 은 인간경험의 지식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 즉, 인식이라는 행동의 대상 (실체, object)와 주관성 (subjectivity)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1)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알고록 하는 지각의 대상 (object)과 (2) 바로 그런 지각이 환영이나 환상이 아닌 지각을 통해서 취해진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주관적인 체제가 그것인데, 후자 (주관적인 체제)가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감각의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과 결합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식의 능동적인 역할]
- 의식 (consciousness)의 능동적인 역할은 Gestalt 학파의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Heritage 는 그림이 주는 정보가 상수와 같이 일정한 것이라고 가정 하고, 사람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두 종류의 해석은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식이 그림의 해석에 능동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을 한다.



◦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구성주관적 영역 (constitutive subjective realm)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주관성이 인간이 알아가는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후의 Schutz 의 typification 의 개념과 연관될 수 있다).

◦ Husserl 은 이 영역이 크게 두가 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첫째는 natural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radical 한 것이라고 하였다. Natural 하다는 뜻은 곧 인간이 사회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를 불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 즉, “as they see, as they are ...”와 같은 의자의 일부를 보고서 [의자를 보고 의자라고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완벽한 관찰점이란 있을 수 없다] 의자임을 아는 것과 같은 인지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는 Garfinkel 의 “taken-for-granted 의 개념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하겠다.]

- Radical 하다는 것은 내 지각의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말한다. 이는 “의자”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의자”로 보여지는 자식의 감각 (지각)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반대적인 증거가 돌발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이 “과연” 의자인가라는 “흔치 않은” 의심을 하게 된다.]

- Husserl의 현상학자로서의 입장은 후에 잠시 언급이 되겠지만,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intersubjectivity를 강조함으로써 다소 철학적인 입장이 강하였다. 이에 반해 Schutz의 입장은 일상 사회생활과 사회 구성원간의 교류순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intersubjectivity 혹은 typification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다 사회학적이며, 행동(행위, 혹은 실천)에 기초를 둔 현상학이었다고 하겠다. 간단히 말하면, 현상학은 실재하는 물체인건 혹은 허구의 대상(우정)이건 간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지각하는 데에는 의식(consciousness)의 구성적인(constitutive)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발적인 가정이라고 하겠다.

3.2. Partings of the Ways

3.3. Schutz and The Verstehende Basis of social science

3.3.1. The Natural and the Social Science

- Schutz는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카테고리(constructs)를 사용하여 사회세계를 의미 있게 해석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해석은 “verstehende”라고 하겠는데, Schutz는 이와 관련해서 3가지의 가정을 주장한다.
 - 인간은 “이미-이해가 되어진” 사건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
 - 사회세상은 바로 평범한 사회 참여자가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획득된다는 것
 - 그리고, 사회과학에 있어서 verstehende는 필요 불가결한 것

3.3.2. Verstehen in the Social World

- Schutz는 겉으로 들어 나는 외적 특성만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특히, 과학적 활동 자체도 Schutz가 말하는 verstehende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과학자 A가 기술하는(과학적) 발견의 경로와 중요한 대목에 대한 기술(서술)이 과학자 B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검증받기 위해서는 A와 B 사이에 공통된 어떤 것들이(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것이 Schutz가 말하는 “이해(understanding – verstehen)”라고 하겠다. 이는 결국, 논리경험주의나 자연주의의 과학적 행위의 형태도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상호작용(interaction), 상호커뮤니케이션(intercommunication)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 Schutz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실체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와 연결된 사회적 의미와의 연관으로서 이해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더하여, Schutz는 verstehen은 특별한 의미에서의(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과학적 도구가 아닌, 어느 한 사회·문화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위해 상식적인 사고가 이용되는 특정한 경험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verstehen이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에 쓰이게 되는 획일적인 잣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Schutz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양자간에 동일한 경험은 불가능한 것이고 나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현상학적인 접근. 즉, 주관의 유아성에 대한 인정]. 그렇다면, verstehen이라는,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그 어떤 것,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세상을 인식하는 나타나는 개인적 주관성, 그리고 너와 나(만인)이 느끼는 인식의 공통성의 모순은, intersubjectivity, 두 가지 종류의 idealization 그리고 typific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Schutz는 설명한다 [아래의 intersubjectivity, idealization, typification 참조].
-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일반적이 아니면서 일반적인 verstehen은, “행위, 사건,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contexts에 대한 일반상식적인 constructs를 인식에 적용함”을 의미한다. 이런 verstehen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위를 거쳐서 서로간에 공유되게 된다.

3.3.3. Verstehen as a Social Scientific Method

- Schutz의 위와 같은 주장,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construct의 적용이 인간이 다른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사회과학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즉, 겉으로 들어나는 외적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여 (경험주의적, 과학주의적 접근방법) 세상을 이해하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다행스러운 점은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는 이 verstehen 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원이라는 점이다. 즉, 평범한 개인이 습득한 verstehen 의 상태를 사회과학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이 사회과학자가 그 사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Foucault 의 구조주의를 기억하는가? 인류학에 있어서의 그의 episteme (본질, structure)에 대한 탐구는 그 구조가 실천되어 나타나는 것들 (용어? [생각이 안 남])을 잘 풀어서 정리함으로써 가능하다. Foucault 의 주장이 여기서 격렬하게 대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종족의 일원이 아닌 인류학자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사회적 행위를 “잘 풀어서 정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 이로써 우리는 Geertz 의 “Thick description”이라는 용어 또한 이해할 수 있다. Geertz 는 인류학자로서 기존의 인류학자가 취했던 구조주의적인 관점에 반하여, 연구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회구성원의 사회행위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의 (그 밖의 보르네오) 닭싸움에 대한 연구 보고를 이런 thick description 을 이용하여 발표한 것, 그리고 이런 방법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 학자와 일반자의 다른 점은, 전자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해 (즉, 평범한 인간이 사회적 행위에 쓰는 지식)”에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학자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typified 한 모델을 구하려 (도출해 내려) 한다는 것이다. Schutz 는 이것을 “second order constructs”라고 하였다.

3.4. A Typified World

- Schutz 는 의식 (consciousness)을 경험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정형화 (typification)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체 (object)를 인식하기 위해서 쓰이는 construct 는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의 (순간적이지만) 일어나는 typification 으로 구성 된다는 것이다.
- 이것은 앞선 Husserl 의 주장 중에 인식이라는 행위는 사물에게서 받는 정보 (sense, experience)외에도 적극적인 의식 (consciousness)의 행위가 개입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겠다.
- 인간의 경험은 바로 이전의 친숙하고도 미리 (언어적) 알려져 있는 일련의 것과 현재 감각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각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전자를 Schutz 는 stocks of knowledge 라고 하고 stocks of knowledge 는 부지불식간에 인간 행위에 조달되어 이용된다고 하였다.
- 이 부지불식간의 조달은 후에 Garfinkel 의 “taken-for-granted manner”로 다시 표현된다.
- Schutz 는, stocks of knowledge 는
 - (1) 실제 (objects)에 대한 construct 의 한 종류 (type)이며,
 - (2)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recipe knowledge”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What to do about it)
- 이는 또한 미래 (앞으로의) 경험을 미리 받아들이게 된다 (정형화되어). 이런 sk 는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부르는 counter-evidence 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인에게는 언제나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관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constructs 에 의존하여 사회 활동과 생활을 하는 평범한 인간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s they see, as they are...”
- 즉, 이는 Husserl 의 구성주관적 영역 (constitutive subjective realm)“에 있어서의 natural 한 영역”과 관련이 있겠다고 하겠다.

3.5. The Problem of Intersubjectivity

- Assuming the same
- Schutz 의 intersubjectivity 는 Anderson 이 주장한 intersubjectivity 의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는 Husserl 과 Schutz 의 차이를 가장 강렬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Husserl 의 intersubjectivity 는

궁극적인 (혹은 초월적인) 그 무엇이라고 하겠다. 즉, 너와 내가 이루어 낼 수 있는 절대적 그 무엇을 Husserl은 intersubjectivity 라고 본 반면에, Schutz는 평범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 무엇을 말한다.

- Intersubjectivity의 문제는 두 사람이 사회적 교류를 할 때에 어떻게 (똑 같은 경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공동된 사회, 자연적인 세계를 공유하고 어떻게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하겠다. Schutz는, 개인은 그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서로 비슷하다는 가정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것이 Intersubjectivity의 성취를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 개인이 한 물체에 대한 지각으로 생겨나는 의식 (consciousness)은 개인간에 동일할 수가 없다는 점,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Husserl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IS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Schutz는 “general thesis of reciprocal perspective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intersubjectivity가 성취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는 아래 두 가지 종류의 idealization을 거치는데,
 - Idealization of interchangeability of standpoints: 내가 바라보는 물체에 얻어지는 것이 상대가 바라보는 물체에 얻어지는 것과 다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또한 나는 상대가 나의 위치에서 그 물체를 바라보았을 때 똑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 또한 상대의 위치에서 상대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 Idealization of congruency of the system of relevance: counter-evidence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내가 나만의 생물학적인 상황에서 얻어지는 독특한 경험과 상대의 똑 같은 그것과의 차이는 둘만의 의사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A는 B와 동일한 “의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임한다.
- Heritage는 위의 두 가정의 이용을 통하여 양자간의 공통적인 세상으로의 초월이 이루어 진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을 가정할 때 - (1) common world를 가정하는 것과 (2) 세계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것 - 일반화자는 끊임없는 idealization을 통해서 위의 둘 사이의 조정을 하고, 이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성공시킨다.
- 또한, Heritage는 Schutz의 이와 같은 입장 - stock of knowledge, shared stocks of typified knowledge, the typifying function of language, 등등 - 으로 사회의 규범 (moral)을 풀어나가려 한 시도는 Parsons의 사회제도에 대한 접근 방법과 비교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p. 56). Parsons와의 완전한 차이점은 바로 이런 “제도”가 끊임없는 revision에 (확인)을 하고 또 하는, 그리고 counter-evidence에 대하여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거나 변형하는) 의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Its maintenance is contingent].
- 여기까지 Heritage는 Schutz의 intersubjectivity와 외적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었음을 지적하고, 이는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 (other's mind)을 읽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Schutz의 입장은 일반화자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회적 행위를 할 때에는 타자의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동기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자 (actor)의 intersubjectivity의 이용은 “철학적”인 것이 아닌, “실용적”인 것이라고 한다.
- Heritage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Schutz가 이용한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 첫째는 기차역에서의 차표검사라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어린아이가 취득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현에 관련된 사람들 하나하나의 의도나 목적을 버리고 type constructs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두 사람간이 만나서 이루는 개인의 typification이다. 여기서 Schutz는 typified knowledge는 상대와의 대화 (사회적 행위)를 위한 자료로 쓰이는 동시에, 대화로서 얻어지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 Heritage는 또한 여기서 irremediable private and inaccessible (by others) experience라는 개념과 contingently unavailable aspects of the other's subjective inten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 전자는 일반화자의 경험이 social datum으로 쓰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극단적으로 이 입장을 해석 하면, 유아론적인 경험론이 되겠다). Schutz는 이에 대해, 일반화자의 “identical for all practical

purpose”라는 개념, 즉, 일반화자는 서로 다른 경험을 얻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idealization 을 통해서 common world 를 이루고, 또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common world 의 불확실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에 사회과학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 또한, 두 번째의 개념은 Parsons 의 사회제도에 관한 개념과의 비교에 쓰이는데, 여기서 Heritage 는 Schutz 의 이론이 제도의 거스름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우위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3.6. The Problem of Rationality

- Schutz 의 rationality 에 대한 입장은 Heritage 가 말한 바와 같이 “the awareness of the essential 과 irremediable incompleteness of the actor’s knowledge in any concrete situation of action”에 잘 나타난다. 즉, 이는 Simmel 의 체스 게임과 같은 것 – 핵심적인 룰을 알지만, 끝없는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 – 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이는 Giddens 의 제 2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Wittgenstein 의 “creative rule-following”의 입장과도 같다고 보겠다.
- Schutz 의 Rationality 는 Heritage 에 의해서 다시 “pragmatic character”와 연결이 된다. Schutz 가 rationality, 그 자체를 타자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분류하는 능력으로 취급을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주장은 “세상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몸을 담그고 실천 (사회적 행위)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은 위에서 말한 verstehen 와 typification 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typification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고 변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3.7. Conclusion

4. The Morality of Cognition

- 두 가지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Parsons 그리고 Schutz
- Parsons의 기본적인 가정은 (1) 개인의 이성적인 행위 (2) 제도적 행동 규범에 따르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하겠다. 사회조직은 필요에 의해서 규범적인 패턴이 내화 (internalization)된 산물이라고 본다. Schutz는 반면에 사회조직을 일반화자 사이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coordinated accommodative work (서로 협조하여 이루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 즉, Parsons의 입장은 사회제도의 유지는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moral rules”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개개인의 일반상식적인 사회지식의 적용을 등한시 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Schutz의 입장은 일반상식적인 사회지식에 치중함으로써, 사회적인 “moral”을 등한시 하는 것이었다. Heritage는 여기서, Garfinkel은 일련의 breaching experiment와 이에 대한 놀랄 만큼의 자세한 해석을 통해서 “moral”과 “cognition”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지적한다.
- Heritage는 Garfinkel의 실험적 연구의 요체는 다음의 질문이었다고 하면서 - How do social actors come to know, and know in common, what they are doing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doing it?,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Schutz의 “사회적 행위의 특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 이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사회학자는 “the second order constructs”라는 “분석적 도구”를 써서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일반화자가 constructs (knowledge라고 썼음)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밝혀준다. 또한, 이런 지식은 정형화 (typified)되게 되는데, 이는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의 의미는 언제나 행위에 관계된 두 사람간의 (시간에 따른) 행위에 의해서 좁혀지고 밝혀지게 된다 [화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화자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정착시키고 다음의 사회적 행위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위에 관계된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된 사회적 의미를 가정하고 언제나 이를 추구하려고 한다.
- 그러나, Heritage는 위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질서”의 근원이 아직도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는 Hobbes가 이전에 지적했던 “자발적 각출”과 크게 다름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Hobbes의 Leviathan 혹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Schutz는 이런 질서는 그 질서에 반하는 counter-evidence가 나타나지 않는 한, 두 행위자의 “무의식적인” 가정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점, “그 질서에 반하는 counter-evidence”의 출현, 이것이 Garfinkel이 행한 일련의 연구였다고 하겠다 (Breaching experiments, 1952, 1963, 1967).
- 이후 Heritage는 ticktacktoe와 일상생활 담화에서의 일탈 실험을 소개한다. Heritage는 특히 뒤의 실험이 Schutz가 언급했던 두 번째 idealization의 일탈이라고 한다. 즉, 타자와 자신과의 세계에 대한 경험의 불일치 (동일하지 않음)는 두 사람간의 대화의 진행에는 무관하다고 여기며, 양자는 (부지불식중에) 끊임 없이 동일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관련된) 많은 부분이 (물리적으로) 이야기 되어지지 않으며, 대화에 임하는 양자는 이런 이야기 되어지지 않은 지식 (배경 지식)을 상대방이 공유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4.1. The Constituent Tasks of Making Sense

- (사회적 행위 혹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구성 혹은 조성 (constituent)의 역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장에서는 Husserl이 주장했던 인식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구성기능이 일반 사회적 행위와 연관이 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4.2. The Moral Enforcement of “Trust”

- Garfinkel의 breaching 실험에서 실험자가 그렇게 빨리 제제를 받았던 이유 (moral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 장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개인이 내화한 (internalized) 사회적 규범”이라는 사회적 이론의 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제도는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이 규범을 필요-욕구의 특성으로서 내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위반이 제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설명은, 대화에 임하는 둘 중의 한 사람이 겪는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좌절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Berger 와 Luckmann 의 입장과 비슷한 것인데, 이 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상징적으로 구성되는 (만들어지는) 환경의 “고유한,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감지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자 (actor, 일반화자)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적 행위자의 행위는 “평범한 기능주의자 (lay functionalist)”의 그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존재하는 상식적인 질서의 유지에 힘을 쓴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은 심리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겠다. 실험에서 청자의 과격한 반응은 Laing 이 지적한, “존재론적 불안감 (ontological insecurity),”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Heritage 는 위의 설명의 틀은 모두 필요 이상의 개인의 의식적인 욕구 혹은 심리학적인 성질 (성향)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고 Heritage 는 Garfinkel 의 실험에서 완벽한 해체적 (혼란적)인 결과가 혼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실험자의 “비규범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결과가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끊어짐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실험자는 실험자의 행위를 “active 한 - 예를 들면,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 일반에서의 일탈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규범적, 모욕적인 성격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 바로 이 점을 Heritage 는 강조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는 “seen but unnoticed”의 태도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외적인 요소 (규범)이 개인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외적인 요소의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taken-for-granted 의 태도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깨질 때 (일탈될 때), 청자는 화자의 규범에서의 일탈에 대한 목적 혹은 의도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Heritage 는 규범에서의 일탈이 단순히 “normal, sensible”과 “senseless”의 구분이 아닌, “normal, sense”와 “sense 혹은 normal 에서 벗어난 intention, goal 등을 파악하려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대개는 “hostile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미의 획득은, 개인의 인지에 있어서 “시간에 연속성 (no time-out)”의 필요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규범의 적용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주장을 Heritage 는 한다.
- 다음으로, Heritage 는 “lay functionalist”로서의 피실험자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한다. 즉, “인지적인 질서의 보전성”에 대한 방어 의 형식으로 피실험자가 실험자의 행위에 반응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Heritage 는 실험후의 설명에 있어서의 피실험자의 공통적인 반응 -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 혹은 지목한 것을 지적하며,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인지적 질서의 보존”이라는 것 보다는, 즉, rule 에 대한 생각을 하기 보다는, 화자와 청자간의 적절한 행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완전히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Schutz 가 지적한 “here and now”의 태도로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rather than “rules are over there”]

4.3. Conclusion

5. Actions, Rules and Contexts

- 이 장에서는 액션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게 된다. Heritage 는 일단 우리가 사회적 행위자를 “사회에서의 그 무엇인가를 실어 나르는 개인”이라는 가정에서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라는 가정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되면, 두 사람간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documentary method”의 reflexive 한 (반영적인) 면에 대한 고찰이 중요해 진다고 주장한다.
- 이를 설명하기 위해 “greeting sequence”가 사용되는데, 이는 그 사회적 행위의 단순성에 대한 설명이 Garfinkel 의 이론적인 면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수 많은 결과지를 치게 되어, 그 본의를 잃도록 하는 오류를 막아주고, 둘째, 이런 경우가 규범의 사회학에서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한 반박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 규범의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의 규범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 행위를 할 때에 준수한다는 것이다. Parsons 의 사회학에서 이는 개인이 규범을 개인적인 목적 (need)의 특성으로서 내화한 것을 가정하고, Berger 와 Luckmann 의 경우는 내재된 상징적인 체계의 “자가 숙박소”인 개인이 그 행동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해서 정리하자면, 똑 같은 규칙을 내화한 둘 이상의 행위자가 행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행위자간의 상황에 대한 정의를 처음부터 일치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주변적인 차이 (marginal difference)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Parsons 와 Searle 의 경우와 같이, 이런 차이는 대개 무시되기 마련이다.

5.1. The Judgmental Dope and His World

- 규범의 사회학에서 예로 쓰여지는 “greeting sequence”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즉, 인사를 받았을 때는 답례를 하여야 한다는 사회의 규칙은 어렸을 적부터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요구된 규범이며, 이 규범이 두 사람간의 인사의 절차에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Heritage 는 바로 이런 규범의 사회학에서 잘 정리된 예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써, 규범의 사회학이 가지는 단점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 Heritage 는 인사과정의 예에서, 두 번째 개인이 답례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예로 드는데, 이 때, 규범의 사회학이 하는 설명은 기본 규범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원칙에 이체는 “unless ... (못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적일 때를 제외하고, 등등)”라는 조건을 달음으로써, 규범, 규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Heritage 에 의하면, 이런 접근은 상당히 비 경제(효율)적인 것이다.
- Heritage 에 의하면, Garfinkel 의 접근방법은 위의 “무 답례”의 경우에, 인사를 한 사람은 인사를 받은 사람의 동기, 의도,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는 상황을 재구성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즉, 전 장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sense 와 normal 한 면에 거스르는 사회적 행위를 맞닥뜨렸을 때, 청자는 화자의 의도적 이유를 파악하려 하고, 이로써 상황에 대한 의미가 다시 구성된다는 것이다 (produced, intended 혹은 choice). 둘째, 바로 이런 choice 에 대한 해석은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의미의 구성”에 사용된다 (doubly constitutive of the circumstances it organizes).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례의 부재는 수 많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Garfinkel 의 사회학에서 “행위의 의미”가 두 사람간의 (시간의 연속선 상의) 사회적 행위에서 구성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규범의 선제 (미리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고 행위의 의미는 행위의 시간적 연속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Garfinkel 은 이런 접근방법을 fat moment 라고 하여 비판한다.
- Garfinkel 은 규범이란, 행위를 반성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다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 이를 이 전의 설명과 연관 지으면, 화자와 청자가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 (normal, sense)을 규범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즉, 인사를 하는 행위들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행위자가 기록적인 방법으로 취하게 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Garfinkel 의 실험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그 (행위의) 범주가 보다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 따라서 사회적 행위의 Norms 와 Maxim 은 결국, 행위가 가지는 그 “무엇”이라는 의미에 대한 반성적인 결정이 documentary method of interpretation 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범은 행위에

의해서 (documentary method 를 통해서) 결정되고 이는 다시 행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Heritage 는 이런 “reflexive accountability of action”이 Garfinkel 의 이론에 중요한 축이라고 지적한다.

- 규범의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겠다. 우리는 규범의 일탈 또한 행위의 전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Garfinkel 의 규범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Schutz 의 typification 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정형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발전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즉, 정형은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언제나 변화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Garfinkel 의 규범에는 행위자의 행위가 풀려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행위의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의미의 이해”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변화와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 Heritage 는 이 섹션에서 Parsons 의 사회학 (internalized norms as needs disposition)이 가지는 단점을 풀어간다. 우선 그는 Parsons 의 사회학에서의 개인은 내화된 규범에 대한 적용, 비적용만이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행위자의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반성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가 되질 않는 것이다. 반면에 Garfinkel 은 retrospective 한 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간). 즉 Garfinkel 에게는 시간선상에 있는 행위의 (한 순간의) 결과는 언제나 다음 행위와 이전 행위를 잇는 행위의 전개를 제시해 주는 “starting point”인 것이다. Parsonian 사회학에 있어서의 단점은 바로 이런 행위의 전개에 대한 contingent 한 범위를 설명할 수 가 없게 된다. 즉, Parsonian 사회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가끔씩 일어나는 “non-returner”들인 것이다.

5.2. ‘Double Constitution’ and the Logic of Normative Accountability

- 바로 이전 섹션은 Garfinkel 의 아래와 같은 선언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S]ocial science theorists . . . have used the fact of standardization to conceive the character and consequences of actions that comply with standardized expectancies. Generally, they have acknowledged but otherwise neglected the fact that by these same actions persons discover, create, and sustain this standardization. (Garfinkel, 1967a: 66-67).
- 이는 평범한 사회적 행위의 반성적인 특성 (평범한 행위의 실천이 곧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Heritage 는 다시 “greeting”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인사를 “주고 그리고 받는” (늘 그러하듯이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의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곧, “perceived normality”가 눈에 띄게 되는 경우는 오직 그 평범성에서 일탈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Heritage 는 norm 의 요건으로 세가지를 이야기한다.
 - 사회적 행위자들이 norm 에 대해서 알고 있음.
 - 이 사람들이 norm 에 대한 일탈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적인 결과를 반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 각각의 사람은 상대방이 (1)과 (2)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 Heritage 는 위에서의 설명이 행위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는 양의 사회적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위에서 말하여진 행위는 대부분 “seen but unnoticed”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 즉 사회적 행위의 routine 한 측면을 강조한다.

5.3. The Essential Insufficiency of Rules in the Determination of Conduct

5.4. Conclusion

- 표 (p. 131-132)

5.5. Accounts and Accountings

6. Maintaining Institutional Realities

7. Conversation Analysis

8. Epilogue: An Uncompleted Quest

9. Appendix

10. Bibliography

11. Index